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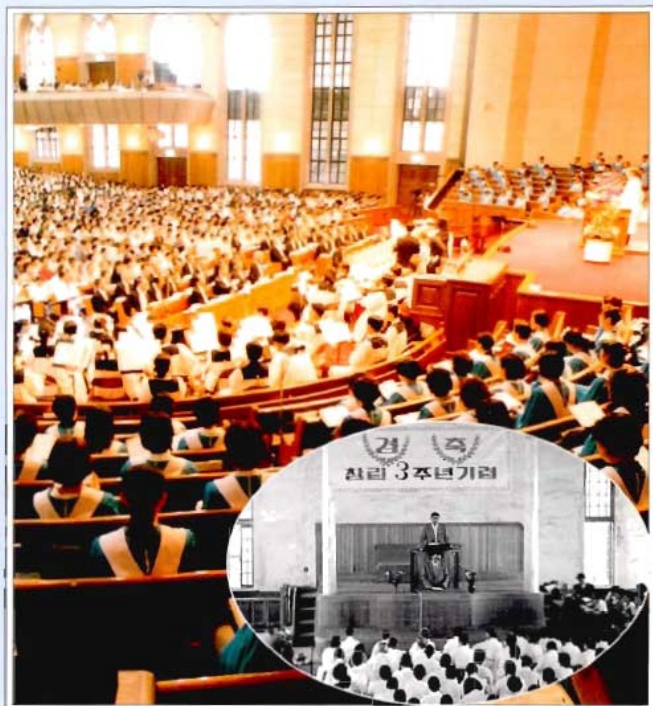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1999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요한복음, 롯기, 사무엘상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주일 · 추석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9

1999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요한복음, 룻기, 사무엘상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주일 · 추석

기 도 제 목

1. 우리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김창인 원로목사님, 김성관 위임목사님, 남녀 교역자들, 당회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는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이 맡은 바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7.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매년 여름이면 찾아오는 홍수와 태풍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 나라를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광범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은 가슴 아픈 이들이 이곳 저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와 고통의 때는 또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긍휼과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기다림의 중요성을 깨우쳐 줍니다.

이 시대는 기다림을 잊고 사는 시대입니다.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 분주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즐겁고 내 몸이 기쁘고 현재만 기분 좋다면 장래의 일은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게 되는 앎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불안해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기다림에 합당한 생활을 회복함으로 세상 모든 이들에게 기다림의 아름다움과 참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충현의 성도님들 모두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자취를 좇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999년 9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충현의 만나

1999년 9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룻기 서론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사사 시대의 타락상과는 지극히 대조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갖가지 부정과 오류의 한 가운데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계보인 다윗 왕가를 일으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사 42:3)을 생생히 목격할 수 있다.

아름다운 단막극과도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한 가족의 비극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유대 민족을 일으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룻기는 매우 짧은 책중의 하나이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풍습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단막극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기 때문이다.

룻기의 저자는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포함시키셨음을 보여 준다. 더욱이 하나님은 유대 인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홀로 뛰어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 준다. 이것은 어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가 된다(롬 10:8-13, 고전 1:18-25). 본

서에서 특별히 독자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부분은 “고엘” 제도이다. 고엘이란 “기업 무를 자”에 대한 개념에서 나온 제도이다. 이 고엘은 친족에 대한 구속의 의무를 가진 자를 가르키는데(2:20, 3:9, 4:1-12) 이는 인류를 구속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스도야말로 그의 택한 백성들의 “구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고엘”이시기 때문이다.

룻기의 문학적 특징은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극적인(Dramatic) 면이 많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구속이 이와 같이 드라마틱한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가치가 지배적이던 시대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소외당한 자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또한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드라마틱하게 보여 주고 있다.

내용 흐름

제1부 : 룻의 헌신 1:1-2:23

1. 룻의 결심(1:1-22)
2. 룻의 헌신적인 사랑(2:1-23)

제2부 : 하나님의 은혜 3:1-4:22

1. 기업 무를 자(고엘)(3:1-18)
 - 1) 나오미의 계획(3:1-5)
 - 2) 룻의 순종(3:6-9)
 - 3) 보아스의 동의(3:10-18)
2. 하나님의 상급(4:1-22)
 - 1) 보아스와의 결혼(4:1-12)
 - 2) 오벧의 탄생(4:13-17)
 - 3) 다윗의 계보(4:18-22)

우리는 흔히 세상살이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힘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힘들이 진정한 힘이 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세상에 속한 힘들을 쫓아 그토록 분주한 것일까요? 진정한 '줄', 진정한 후견인을 생생하게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님께서도 보혜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란 '상답자', '격려자', '강하게 하는 자' 등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옹호자(변호인)', '법적 후견인'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후견인이 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대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후원자, 후견인이 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십니까? 그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 이십니다(26절). 따라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위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진정한 후견인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근심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채웁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진정한 후견인은 누구입니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줄'은 성령님이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좋은 포도나무'가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탐욕에 붙어서 '들포도'를 맺는 나무가지가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오직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약의 백성들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대한 순전한 복종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모든 일을 의식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길 때 막힘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 막힘없는 기도를 통해 생명의 흐름을 건강하게 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를 예수님께 더욱 단단히 붙어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요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17절).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행여 내가 '들포도'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결국 맺게 되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으로 인해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만은 지식과 판단력을 가지고서도 성경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치에 대하여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어떤 힘, 혹은 '영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비밀이 보혜사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는 죄인 개개인의 양심에 가책을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해결책을 갈망하도록 역사하십니다(행 2:37). 성령님은 오셔서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들추어 내십니다(8-11절).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13-14절). 현대 교회 안에는 성경 지식이 풍성합니다. 말씀에 대한 많은 배움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각 성도들의 가정에는 성경책이 수북합니다. 기독교 서점에는 쏟아져나온 무수한 신앙 서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감동을 주는 인물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진 영성의 인물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의 모든 시대를 주도하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의 지체로 인해 거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겸손한 순종 없이도 생활해 나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없이는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빛으시는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깊은 기도와 순전한 말씀 순종을 통해 영성을 회복시켜 주소서. ② 감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잘 섬겨 나갈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씩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치과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찡그린 얼굴로 고통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로 인해 기계의 굉음과 통증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따라가는 한, 고통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연히 우리를 미워할 이유도 없고 손해볼 이유도 없고 굳이 인내하고 참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고통은 필수적입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정욕을 죽이고 탐심과 증오와 미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애통하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20절 상반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향해 조롱의 손가락질을 하고 제자들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의 간격이 짧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죽음은 곧 부활에 의해서 삼킨 바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20절 하반절).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기 앞에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므로 극한의 위기가 닥치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싸움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회복을 약속받아 사는 자들이므로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겪는 고난은 이미 승리를 향한 장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겪는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오늘은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46년 전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함께 시작한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바로 지난 주에 이 교회에 등록된 지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수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 목적을 아주 체계적으로 보여 주면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뤄진 교회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4-5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6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10절). 이 숭고한 목적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지체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기业的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19절). 교회가 이 부르심의 거룩한 목적을 알고, 그에 따라 행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그 유일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23절). 오늘날 교회는 교회만이 소유하는 거룩한 영광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는 교회만이 그 맛을 낼 수 있는 고유한 소금과 빛의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나는 어떠합니까?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변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어릴 때 아주 못되게 굴던 아들이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소리를 잊지 못해서 극적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곤 합니다. 아들은 생각합니다. “나같이 못난 놈을 위해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도하시다니 ….”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애끓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고개는 절로 숙여지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이 우리같이 못난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시다(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 삼으셨습시다(6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9, 15절) 그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소원하십니다(13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시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입니다(22절).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 사랑에 합당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다듬어져야 하겠습시다.

가장 낮은 나를 위해 가장 높은 분의 사랑이 부어졌습시다.

▶ 기도 제목 / 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예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죄와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없는 죄를 구분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막 3:28-29).

본문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세있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들을 보았거나 그에 대하여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서는 결단코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함과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너무나 놀라운 신성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이들을 안내하여 앞장 선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 대세에 밀려, 혹은 군중심리에 뒤섞여,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야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구세주로 오신 분,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잡아다가 권세자들에게 인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영적 혼돈의 절정기였던 사사시대 당시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삼손을 붙잡아 적국의 군사들에게 넘겨 주기 위해 모인 3천여명의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 블레셋 군사는 고작 1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3천명이 모여 하나님의 종을 잡아 1천명의 적국에 넘겨 주는 해프닝이 생긴 것입니다. 영혼이 메마르고 초라해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외면하는 일이 없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경험과 앞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헌신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아무리 큰 이익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크지 않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회의를 하다보면 논쟁이 거듭되다가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수결로 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것을 민주주의 사회의 약점인 '다수의 횡포'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의 문은 좁고 그 길도 험악하다고 가르치시면서 그곳으로 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곧 진리의 무리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거부하고 불법을 따르는 다수가 진리를 따르는 소수를 억압하고 괴롭힐 가능성은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를 자아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다수의 예수 반대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심문합니다. 위협과 폭력이 사용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종이 주먹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그는 폭력을 통해서 예수님께 '건방지게 굴지 말아!' 라고 말한 셈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같이 분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고 베드로는 몰래 따라왔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매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야말로 거세게 몰아부치는 권력과 다수의 횡포가 진리를 억압하고 질식시키는 무서운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지막 승리를 위해 오늘 단호히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와 당장의 위기 모면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 앞에서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 기도 제목 / ① 대세를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에 동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일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믿음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살피고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신앙보다 자녀와 직장 등 다른 관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실천적 무신론' 혹은 '실천적 불신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구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빌라도를 향해 예수님은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요” (34절)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빌라도의 개인적인 고백을 듣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기다림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함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나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개인의 정치적 위치와 체면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만의 문제입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의 진실보다 체면과 내 위치를 더 중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않습니까?

나의 체면이 순전한 믿음을 가리우지 않도록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0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권세는 이와 같이 사람이나 상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권세를 소유하려고 하고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근처에라도 가고자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을 가르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느니라”.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의 종교지도자들도 또 빌라도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마지막 권세자이신 아버지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롬 13:1).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 10:28). 이는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사람이나 기관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생애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온 몸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말이나 환경에 쉽게 좌우되는 우리들의 태도를 이제는 바꾸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 ▶ 기도 제목 / ① 사람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게 인도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나 장식품을 몸에 간직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십자가가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끔찍한 상징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옛날 사람들이 고안해 낸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노예들이나 반역 죄인들에게 이 형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이 형벌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23절).

‘십자가에 못박혀 죽는 사람은 ‘천 번 죽음을 당한다’고 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곧 못이 손과 발에 박히면 못이 박힌 상처 부분이 부풀고, 근육이 찢겨짐으로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며, 몸의 위치가 부자연스럽게 때문에 오는 불쾌감,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 타는 듯한 목마름 등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한 지옥의 저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마 27:46).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죄를 위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하면서도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는 추호의 의심 없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 고개를 흔들립니다. 당혹감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빈 무덤, 세마포, 머리를 찢던 수건, 첫 목격자인 여인들과 제자들의 증언 등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심을 차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세가 없고 한 번 살고 죽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일 죽을 테니 잘 먹고 잘 살자' 는 인생 철학을 견지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증언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내세, 곧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의 공산당이 어젯밤 자정을 기해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휴전선을 넘었다는 뉴스 보도를 오늘 아침 접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우리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영원을 준비하는 나그네의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죽음 이후의 영원을 준비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종종 신앙 생활을 하면서 깊은 의심과 절망의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의심의 문을 지나 큰 확신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체험의 소유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인물을 한 명 더 소개합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분명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무조건 불신앙이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의심을 간직한 사람을 일단 인정해 주고 신앙으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한편 의심 많은 도마는 “... 앎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25절)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단 한 군데만 만들어 놓는 엄청난 실수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식으로가 아니라 내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문을 내가 정해야 하고, 만일 주님이 다른 길로 오시려고 하면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세상이 지금 행하고 있는 실수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호기심 많고 질문 많은 도마를 결코 제자들의 무리에서 추방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질문을 환영하시며 그의 의심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뼈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29절).

‘의심 속에서’가 아니라 ‘확신 속에서’ 내걸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을 만난 확신 가운데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도록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아마 일생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라고 자신만만한 대답을 해놓고선 불과 며칠도 안되어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패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실패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패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실패로부터 회복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쓰라린 실패의 소유자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세 번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 16, 17절)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 횟수만큼 동일하게 세 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심으로써 베드로의 실패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즉 그가 자만할 때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그의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용서하셨으며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실패를 넘어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총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사를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중 한 가지 반응을 취합니다. 즉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든지,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의연하게 대처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시련을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 그 시련은 결국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시련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의연하게 대처한다면 그 시련은 우리의 주인이 되는 대신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았던 사사시대, '양식 창고'라는 뜻을 지닌 베들레헬에 기근의 시련까지 불어닥치자 엘리멜렉은 불행하게도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취했던 행동처럼 그는 가족과 함께 이방 땅 모압으로 도망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걸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으려고 떠났던 모압 땅에서 자신과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런 것에 상관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같이"(사 40:31) 믿음으로 인생의 폭풍우를 치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직시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모압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본문은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요청과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단념하기로 한 동서 오르바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가겠다고 고집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2:12). 사실 그녀의 주변이나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들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녀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태생 여인이었습니다. 그모스 신은 인간을 번제로 요구했으며 부도덕을 장려한 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시아버지가 죽었고 그 다음 자기 남편과 그 형제도 죽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부양도 받을 수 없는 과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 자란 것은 모진 시련과 실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신 23:3)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여호와와의 총회에 당당히 들어온 룻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마 1:5).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긍휼 가운데 거하기로 결정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기독교는 단지 여러 종교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러나 백보 양보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독교와 타종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를 들라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데 반해 다른 종교는 공적(功績)의 종교라는 점일 것입니다. 타종교는 그것이 무엇이건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또는 사랑을 말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룻은 가난한 과부요 나그네로서 아무에게도 자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당시 그 사회에서는 가장 비천한 자였습니다. 때문에 그녀는 밭에서 이삭을 주어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가야 할 처지였습니다.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때마침 친족 중 한 사람이요 유력(有力)한 자인 보아스가 그 밭에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있는 낫선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는 사환을 통해 낫선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친족 나오미의 현숙한 며느리 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를 자기 가족의 일원처럼 환대하고 많은 친절과 은혜를 베풁니다.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룻이 전혀 뜻밖에도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오 늘날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병폐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선물은사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붙들린 바가 되면 그분이 주시는 모든 선물 또한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본문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 그의 선물만이 아니라 그 자신을 소유하게 되는 생의 전환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옴이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들의 계획은 룻이 나옴이를 보살피고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해 그럭저럭 생계를 잘 꾸려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옴이는 다른 계획을 갖습니다. 그것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모두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이제 룻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녀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 입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급기야 보아스와 만나게 되자 그녀는 그를 소유하기 위해 청혼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먹다 남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고(2:2), 단순히 선물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되며(2:14, 16),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면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그분을 소유합시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선물이 아닌 그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해피 엔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행복하게 끝나는 경우를 가리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룻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룻기는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시작해서 한 쌍의 결혼식으로 그 끝을 맺습니다. 첫 장에서는 온통 우는 이야기 투성이었는데 마지막 장에서는 베들레헴에 온통 기쁨이 만발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다윗은 “저 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 30:5)라고 노래했는데, 마치 나오미와 룻의 경우를 두고 한 고백 같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 곧바로 일에 착수합니다. 먼저 자신보다 기업 무를 권리가 있는 친족을 찾아가서 그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 친족이 그 일을 꺼립니다. 그러자 보아스 자신이 그 일을 기꺼이 담당하겠다고 나섭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땅을 도로 사고, 룻과 결혼합니다.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과 씨를 보전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 칭합니다. 1장에서 나오미는 빈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빈 손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들려지고, 이제 더 이상 ‘슬픔’(마라, 1:20)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1장에서 룻은 이방인과 나그네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친족 구속자인 보아스와 결혼하여 언약 백성이 되었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해피 엔딩의 인생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비결을 기억합시다.

생명의 주 되신 분 발치에 당신 자신을 두라!

▶ 기도 제목 / ① 생명과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내 자신을 두어 영원한 기쁨에 동참케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신학교 사역과 한인교회, 현지인 개척교회 사역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 나라에서 잠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과 거리가 먼가를 잘 설명해 놓은 기도 안내서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신자인 '하나님'의 이름조차 기입하지 않은 채 하늘 나라로 기도의 우편을 발송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하늘 나라 우체통에는 '수취인 불명'의 편지가 수북합니다. 당신의 기도 편지는 어떠합니까? 본문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 여인을 통해 잘 보여 줍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여인의 기도를 묘사하면서 "여호와 앞에"라는 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10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12절)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15절).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분명하고도 생생한 의식으로 하나님의 존전(尊前)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뢰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아뢰지만 기도 내내 우리의 진정한 수신자(受信者)는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세상의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안식령 선교사(수리남)가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어 수리남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21

(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다

찬송 / 338장 본문 / 삼상 1:19-28

한나는 자신의 무자함에 대하여 또한 자신의 남편 엘가나의 후처인 브닌나의 안하무인하고도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막한 일을 당할 때 술취함으로 방탕함으로 그 문제를 덮어 버리거나 혹은 잊어버리려 하는 것에 반하여 (삼상 1:13, 14) 한나는 하나님 전에 올라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들이 잉태하도록 태(胎)의 문을 여셨습니다. 믿음의 귀한 선물인 아들을 얻은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과 같이 평생 동안 여호와께 바쳐질 아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들을 얻기 전에 이 아들에 관하여 서원하였던 것처럼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데리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영히 있도록 드렸습니다(24절).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육보다 더 확실하게 양육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 주는 동시에 주신 자녀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가 담당하는 학교, 교회,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우리는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몰락하는 한 가문을 보는 한편 새로이 떠오르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전적으로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몰락의 길을 걸어가던 한 가문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가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 전반부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오히려 마음 홀가분하게 감사에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한나를 보게 됩니다. 한나의 찬양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만왕의 왕이 되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1-8절). 한나의 찬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 찬양입니다(9, 10절). 한나의 이 찬양은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엘리의 영성과 매우 비교가 됩니다. 엘리는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을 술취한 여인으로 몰아세울 만큼 영적으로 둔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3:1). 많은 학자들이 한나의 이 찬양을 성경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황금의 열쇠(golden key)라고 부르는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찬송이 단순히 한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녀의 입을 의탁하여 다가올 메시아 왕국을 노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 왕국을 준비시키시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온전한 지혜가 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구원의 찬송이 넘치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케냐)가 사역지에 잘 적응하여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절 대 헌신과 절대 성결을 삶의 목표로 삼았어야 했을 제사장 흡니와 비느하스는 그 당시 평신도들이었던 성전을 섬기던 여인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여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 불량자였습니다(12절). 둘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을 먼저 강탈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거룩한 제사 제도를 파괴하였습니다.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던 여인들을 겁탈하였습니다. 이방 국가들의 음란한 풍습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답습하는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 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삼상 2:12). 그들은 비록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들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생활에 대한 엘리의 태도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바로 지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적으로 아들들의 죄악을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무엘은 엘리 가문에 대하여 회개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30).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35절)라고 말씀하심으로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원주민 선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계속 열매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찬 송	30장 '여호와 하나님'	다같이
성경봉독(교독)	시편 97:1-12	다같이
메시지낭독	'그 거룩한 축복에 감사할지어다'	인도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생활을 숨쉬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이 나라에 허락하신 자유와 풍년의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허락하신 죄로부터의 자유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를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는 사랑의 순서를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책임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돈보다도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악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 주머니끈을 풀어 구제하며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김창인 원로목사의 '절기설교집' 중)

기 도	인도자
주기도	다같이
나 눔	올 한해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
	더 사랑하지 못한 일들 나누고 격려하기

타락으로 치달던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선지자로 부각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서 떠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엘리 가문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레 19:2).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음에 임박해서 “이가봇”이라고 외치고 죽어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엘리 가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떠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차례에 걸쳐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세 번 동안은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을 알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각에 들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고 사무엘에게만 들린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10절). 이제 엘리를 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관례를 따르자면 흠니와 비느하스가 엘리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과 같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민감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주의 음성에서 귀 기울이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한인 교회와도 잘 협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엘리 가문을 몰락시켜가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어처구니없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할례 없는 이방 나라 블레셋에게 참패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과 특별히 백성들의 지도자인 엘리 가문의 타락이 어떠한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기는커녕 관심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3절)라고 하면서 실로에서 법궤를 내어다가 메고 다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엘리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엘리의 가문은 많은 영적 특권을 가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정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엘리의 가문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과 문맹 퇴치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잘못되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매로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는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바르게 되라고 하는 것이지 매를 맞고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징계는 사랑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또 괴롭힌 블레셋에게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랐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던 우상 다곤(Dagon)을 향한 심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3절). 다곤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곤신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심으로 다곤을 신으로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敬畏心)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지금껏 알고 섬기던 최고의 신 다곤을 능가하는 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스돗(6,7절) 가드(8,9절) 에그론(10-12절)까지 이르러 블레셋을 심판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 주는(시 147:8) 실증(實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늘도 주의 구원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② 허요셉 평신도선교사(이집트)가 진행하는 회교권 선교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맞본 블레셋 온 국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빼앗아 온 법궤가 들어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심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그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려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법궤 취급 방법(레 6:1-18, 민 4:15)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제물을 바치고(3-6절), 법궤를 수레에 싣고 소로 하여금 그것을 끌도록(7절) 했습니다.

어쨌든 법궤에 대한 맹신으로(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없이)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일깨운 동시에 적진에서도 홀로 일하시고 홀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 주시고 블레셋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선포하신 후에 다시 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진 뒤 꼭 7개월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법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던 소에 의해서 벨세메스로 옮겨졌습니다. 벨세메스로 돌아온 법궤에 대한 가득찬 호기심으로 법궤 안을 들여다보던 벨세메스 사람들이 오만 칠십인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19절). 이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사람에게 의해서 결코 침범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법제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선지자의 자리에 사무엘이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은 날로 든든하여져 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실에 버ଳ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우매한 백성들을 깨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금껏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4절).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을 가진 요새요 광장입니다. 미스바에서 이들은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5-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대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줄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즉각 군대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승(大勝)으로 끝이 났습니다(11, 12절).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확실한 지도자로 부각시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른바 신정 통치(神政統治)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부르심에 효과적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② 병든 자들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던 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느닷없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열방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우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들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 백성들의 요구를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7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 주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갑니다.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6-8절), 또한 자신들의 요구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9-18절)을 역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자 하는 고집스런 마음입니다. 그들의 요구로 세워진 첫번째 왕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과 같이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세상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소서. ② 9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10월 한 달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

응답받은 기도 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서론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선지서의 왕자'라는 별칭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이사야서가 담고 있는 웅장한 시야와 하나님의 공의와 구속의 은총, 그리고 최고조에 달한 메시아 예언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사야서는 성경의 요약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이듯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듯이 이사야서는 39장까지의 전반부 내용과 나머지 27장에 달하는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1장부터 39장 사이에는 부도덕한 우상숭배자들, 곧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27장은 메시아의 등장에 따른 희망과 위로가 가득합니다. 참으로 특별한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까지도 이사야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이사야서는 한 마디로 죄악의 고발과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구속사의 위대한 흐름을 한 눈에 보여 주는 책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 1-12절까지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한 탁월하고도 섬세한 예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것이며(마 1:1), 그는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마 3:16). 그는 인류를 자비와 의로 심판하실 것이며(계 19:11), 그의 통치는 평화와 화해로 상징되는 우주적인 통치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도 메시아께로 나아올 것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

는 먼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입니다(사 42:1-4, 49:1-6, 50:4-9, 52:13-53:12).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80년까지 약 6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걸쳐서 예언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유다의 웃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의 통치기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호세야와 미가도 활동했었습니다.

내용 흐름

제1부 : 심판의 예언(1-35장)

1.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예언(1:1-12:6)
2. 다른 열국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예언(13:1-23:18)
3. 여호와와 그의 날에 대한 예언(24:1-27:13)
4. 이스라엘 및 열국들에 대한 저주와
오실 왕에 대한 예언(28:1-35:10)

제2부 : 삽입된 중간 이야기(36-39장)

1. 앗수르로부터 구원받은 히스기야(36:1-37:38)
2.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히스기야(38:1-22)
3. 히스기야의 죄(39:1-8)

제3부 : 위로의 예언(40-66장)

1.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40:1-48:22)
2. 메시아를 통한 구원(49:1-57:21)
3. 이스라엘의 영광스런 미래(58:1-66:24)

제 1 과

이사야(5) 섰다고 생각될 때

찬 송 / 519장
읽을 말씀 / 36:1-39:8
공부할 말씀 / 39:1-8

먼저 읽기

히스기야 왕 14년에 앓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십만에 가까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성을 둘러싸고는 성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극에 달해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며 하나님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 중 가장 극적인 부분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호소한 후 산헤립의 군대 십팔만 오천이 하루 아침에 시체로 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산헤립은 앓수르로 돌아간 직후 부하들에 의해 살해됩니다.

더 나아가 이 엄청난 사건 후 히스기야에게는 개인적인 질병의 고통이 따르지만, 이것 역시 그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극적으로 치유됩니다.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능력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고통이 기도를 통해 완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섰다고 생각될 때가 문제입니다.

함께 살펴보기

1.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말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1절)?
2. 그 편지와 예물을 받은 히스기야의 반응과 그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2절)?
3.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3-4절)?
4.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6-7절)?
5.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마지막 반응은 무엇입니까(8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우리는 '일이 다 잘된 다음이 문제다' 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일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는 준비하느라, 또 일이 진행되는 중에는 행여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하여 절제하고 근신합니다. 그러나 일단 일이 잘 끝나고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방심합니다. 따라서 불의의 사고나 실수는 이런 상황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훈계한 바 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지는 않는지요?
2. '과시'가 문제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고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 집안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할 때와 이기심 속에서 나와 나에게 속한 것들을 자랑할 때의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3.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히스기야의 마지막 반응(8절)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기적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모습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제 2 과

이사야(6)

하나님의 마음

찬 송 / 499장

읽을 말씀 / 40:1-48:22

공부할 말씀 / 43:1-7

먼저 읽기

40장 이후의 장들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심판의 예언은 사라지고 사죄와 위로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위로는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합니다. 이제 이사야의 마음은 무너질 위기에 놓인 작은 성, 곧 포위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거대한 세계 제국과 그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한 제국을 불러 일으키실 것이나, 먼저는 그 제국을 북방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입니다 (41:25). 그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될 사람은 바사 왕 고레스가 될 것입니다(45:1).

그리고 이러한 언급 사이사이에는 참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이끄실 진정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묘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살펴보기

1.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십니까(1절, 3절 상반절)?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너는 내 것이라”) 삼기 위해서 행하신 일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1절 상반절)?
3.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2절, 4절 상반절)?
4.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셨습니까(5-6절)?
5.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7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2.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들입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때에 심판주 앞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겉으로 그가 종교적인 생활을 했는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 7:21-23). 나와 우리의 생활을 한 번 평가해 봅시다.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3 과

이사야(7)

검 손

찬 송 / 347장

읽을 말씀 / 49:1-57:21

공부할 말씀 / 53:7-12

먼저 읽기

49장부터 57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종의 노래' 라고 불리우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중 42장을 여호와의 종의 첫번째 노래로 보고, 49장 1절-50장 3절, 50장 4절-11절, 그리고 52장 13절-53장 12절을 각각 두번째, 세번째, 그리고 네번째 종의 노래로 봅니다. 이 종의 노래들은 다른 삼입구들로 인해서 한 곳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 서로 연결되며 점차 확대되면서도 통일된 모습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52, 53장에 이르러 웅장한 노래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예언들은 예언이 선포된 당시나 아니면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만 밝혀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종의 노래 중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기

1. 하나님의 종의 모습 중 7절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종이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8절)?
3. 9절은 하나님의 종의 죽음과 관련하여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4. 그가 상함을 입고 절고를 받아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10절)?
5. 여호와와 종이 자기 영혼의 수고와 지식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11절)?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여호와와 종은 핍박과 수치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아의 구원은 이런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로부터 '말이 많다' 혹은 '말만 많다'는 비난을 종종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태도를 뜻하는 것일까요?

2. 여호와와 종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삶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에 집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너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삶의 목적이 분산되거나 혼잡스럽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목적을 향해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 4 과

이사야(8)

참 예배

찬 송 / 518장
읽을 말씀 / 58:1-66:24
공부할 말씀 / 58:1-14

먼저 읽기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고유한 것은 귀한 것이지만 고유한 것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고유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순화되고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추석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없이 즐기는 날' 이 아니라, 성경적 의미의 재해석을 통해 누려지도록 깊이 묵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몸과 삶의 모든 영역, 곧 사회, 문화, 정치적 영역 전부를 구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새롭게 해석되고 드러져야 합니다.

추석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이사야서 공부에 맞추어 '참 예배'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기

1.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금식이 본래의 의미에서 크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어떻게 잘못되어 있었습니까(3-4절)?

2.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입니까(6-7절, 13절)?

3. 8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백성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아래 구절들에 따라 찾아 적어 보십시오.
 - 1) 8절 -

 - 2) 9절 -

 - 3) 11절 -

 - 4) 12절 -

 - 5) 14절 -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기

1.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나름대로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추석을 어떻게 보내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추석을 보내는 것은 어떤 것이겠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릴 때(금식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금식을 포함한 예배의 행위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생활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3 과

봉사하는 생활

찬 송 / 372장

암송할 말씀 / 벧전 4:10-11

목 상

베드로전서 4장 10-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1. 최근 나의 봉사 생활은 어떠합니까?

2. 봉사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말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

3. 봉사는 누구처럼 하여야 합니까?

4.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참고 고전 12:4-6)?

5. “각양 은혜를 말은 선한 청지기” 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 ...**

6. 봉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7.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은 봉사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 봉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봉사할 이유는 무엇입니까(참고 엡 6:12)?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

9. 봉사의 결과는 어떠해야 합니까?

10.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적 용

11. 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2. 현재 봉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봉사가 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